

인종과 차별적 지리:

애나 드비어 스미스의 *Fires in the Mirror*와 *Twilight**

정 병 언
부산대학교

I. 서론

애나 드비어 스미스(Anna Deavere Smith)의 『거울 속의 불길: 브루클린의 크라운 하이츠와 타자의 정체성들』(*Fires in the Mirror: Crown Heights, Brooklyn and Other Identities*, 1992)과 『황혼: 로스앤젤레스, 1992』(*Twilight: Los Angeles, 1992*, 1992)는 <길 위에서: 미국의 특성을 찾아서>라는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극들이다. 다양한 인물들과 가진 인터뷰들로 구성된 이들 극은 각각 브루클린의 크라운 하이츠와 로스앤젤레스 중남부를 배경으로 미국의 특성을 탐색한다. 스미스는 아프리카계미국인 극작가로서 『황혼』에 관한 글에서 “정체성을 우리들의 안전한 집”(Smith, “Insights”)이라고 표현하며, 인종 정체성이라는 ‘안전한 집’에 갇혀 타자의 지리를 차별화하는 집단적 공동체주의를 인종 갈등의 원인으로 진단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친숙한 관점의 토대가 되는 ‘안전한 집,’ 즉 “하나의 ‘장소’(place)에 속하게 되는 위험”에 빠져 인종적 타자들의 정체성을 담론적으로 구성할 때 차별적 “배치(placement)’로 인한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9252).

불행”(Smith, “Insights”)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종 정체성의 구성과 이에 기초한 지리의 차별화는 『거울 속의 불길』과 『황혼』에서 인종의 사회적 범주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들 극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체성이나 차별의 주제에 맞춰져 있으나, 그것을 공간의 문제와 연관지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들 극에 대한 비평은 주로 극의 형식, 인종의 공연, 그리고 교육의 문제를 다루는 데 모아져 있다. 로버트 스칼란(Robert Scalan)이 미국 극의 지배적인 스타일로 여기는 리얼리즘의 맥락에서 『거울 속의 불길』을 다룬다면(98), 데비 탐슨(Debby Thompson)은 『황혼』에서 “인종의 공연성”(127)을 배우의 연기나 작가의 개입과 관련지어 분석한다. 교육에 관한 한, 엘리자베스 M. 마이어스(Elizabeth M. Myers)는 『거울 속의 불길』을 어떻게 활용하여 수업에서 “개인의 서사를 공연할”(52) 것인가, 또 샌드라 K. 스탠리(Sandra K. Stanley)는 스미스의 극에서 인종의 분류를 긍정하는 절대주의나 본질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문화의 다양성을 가르칠 것인가를 다룬다(191).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자넬 라이넬트(Janelle Reinelt)가 지적하듯이, “인종과 그 밖의 다른 차이들을 재현하는 문제”(614)로 귀결된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러한 인종의 공연과 교육의 문제 이면에 작동하는 정체성의 정치를 차별적 지리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 닐 스미스(Neil Smith)에 의하면, 인간주의 지리학은 사회와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개념화한 실증주의 지리학을 비판하며, 단순히 객관적이거나 물리적으로 주어진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공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105). ‘사회적 공간’이라는 말은 공간과 사회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 “상호작용한다”(interact)거나 공간적 패턴이 사회구조를 “반영한다”(reflect)는 것이 아니라 상호구성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106). 『거울 속의 불길』과 『황혼』에서 크라운 하이츠와 로스앤젤레스 중남부라는 지리적·심리적 공간은 인종 정체성에 기초한 ‘사회적 산물’(Smith, *Uneven Development* 107)이다. 특히 인종 정체성에 의해 공간이 구성되고, 또 이러한 공간이 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인종과 공간은 상호구성적이다.

본 논문은 『거울 속의 불길』과 『황혼』에서 인종적 타자들의 정체성이 생산되는 과정뿐 아니라 차별의 공간에 위치한 그들의 소외와 사회적 병폐를 인종과 공간의 상호구성적 관계성 속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인종적 타자들의 정체성을 차별적 공간과 관련하여 논의한 후, 이러한 공간의 배치가 어떻게 타자들을 지배하기 위한 합법적인 공간으로 생산되며, 그리고 인종 정체성에 기초한 폐쇄적 공동체들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제 3의 공간’이 지닌 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II. 정체성과 차별적 지리의 공간

『거울 속의 불길』과 『황혼』은 각각 1991년과 1992년에 발생한 미국의 역사적 사건들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종의 문화읽기이다. 이들은 “미국의 언어로 미국을 발견하기 위해”(Smith, “Insights”) 실제의 장소들, 예컨대 크라운 하이츠, 로스앤젤레스 중남부, 길거리, 빈민지역, 비벌리힐스, 가게, 호텔, 카페와 같은 장소들을 배경으로 한다. 사실, 스미스는 이 사건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흑인으로서 어떻게 인종과 공간이 상호구성되어 인종적 차별화를 낳는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그녀는 최대한 객관적 거리에서 “사회적 다큐멘터리, 저널리즘식 인터뷰, 그리고 연극의 형식이 융합된 잡종적 형태의 극”(Stanley 194)으로써 다민족 문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꼽히는 정체성 정치를 공간성의 양식으로 다룬다. 특히, 스미스가 두 극을 여러 인터뷰들로 구성한 것은 캐럴 마틴(Carol Martin)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말의 “영적인 힘”(51)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말을 충분히 하게 되면 말이 당신이 됩니다”(Martin 51)라고 지적하듯이, 말에는 인종 정체성이나 주체를 구성하는 수행적 효과가 있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문화적 주체를 담론의 원인이기보다는 효과라고 지적하듯이(145), 스미스의 극에서 인종 정체성은 언어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담론의 효과이다. 이렇듯, 인종 담론은 타자의 공간을 구성하고, 동시에 이러한 공간

이 정체성을 구성하는 힘을 지닌다.

브루클린의 크라운 하이츠는 『거울 속의 불길』에서 인종의 범주에 따라 공간이 차별적으로 분할된 지역이다. 이곳에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중동,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에서 이주하였거나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하시디즘파(Hasidism)의 루바비처 유대인 공동체(Lubavitcher Jewish Community)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카리브해 지역이나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주로 미국 시민권이 없는 흑인들의 공동체이다. 이 두 공동체는 집단적인 인종차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비록 크라운 하이츠가 미국 내에서도 주변화된 지역이지만, 그곳의 두 공동체는 서로 배타적이다. 『거울 속의 불길』은 1991년 8월에 발생한 인종간의 폭동사건을 배경으로 이들 간의 갈등의 원인을 짚어낸다. 흑인 거주지역에서 유대교 하시디즘파의 정신적 지도자가 탄 차량 행렬에서 흑인아가빈 케이트(Gavin Cato)가 숨지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호주의 하시디즘 학자 안켈 로즈바움(Yankel Rosebaum)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거울 속의 불길』은 흑인 아이의 사망 사건이나 유대인이 살해된 사건은 극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유대인이 운행하는 개인 구급차가 도착했으나 가벼운 상처를 입은 가해차량 운전자만 신고 간 반면, 중상을 당한 케이트나 그의 사촌 안젤라(Angela)는 내버려두고 가버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두 공동체 사이의 해묵은 인종간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스미스는 극작가 엔토자케 샹게(Ntozake Shange)나 조지 윌슨(George Wilson)을 위시하여 사건의 목격자, 공동체의 주민이나 지도자, 뉴욕시의 경찰, 시장, MS 잡지 공동창업자 레티 카틴 포그레빈(Letty Cottin Pogrebin) 등 총 29명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그 원인을 분석한다. 특히 그녀는 연기자로 하여금 그들의 태도, 목소리 리듬, 독특한 언어 사용법을 그대로 흉내내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해당 구성원들의 반응을 보다 사실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렇듯, 스미스는 이 극에서 “3일간의 인종분규를 둘러싼 사건과 감정”(Weatherston 230)을 담아냄으로써 인종간의 물리적·심리적 거리화의 정치성을 폭로한다.

『거울 속의 불길』은 “정체성”의 장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스미스는 엔토자

케 상계의 말을 인용하며 정체성을 거주하는 장소에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정신적 장소감”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영원한 타자로 존재하는 인종적 타자들은 상계의 말처럼 “주위 환경의 일부이지만, 그것과 분리되어 있다”(11)고 느낀다. 이 점에서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 각자의 고유한 물리적·정신적인 장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종의 범주에 기초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에 불과하다. 『거울 속의 불길』에 등장하는 안젤라 데이비스(Angela Davis)의 말처럼, 이렇게 구성된 “인종은 . . . 공동체와 동의어”(39)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유대인공동체나 흑인공동체 간의 심리적, 지리적 거리는 곧 두 인종간의 갈등의 정도를 반영한다. 캐리비안 출신의 젊은 흑인남자 #1은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술에 취해 사고를 내고도 구급차에 실려간 반면, 가빈 케이토는 땅바닥에 버려져 있었다면서 흑인 공동체에는 “정의가 없고, 정의가 없었으며, 어떠한 정의도 없을 것이다”(93)라고 분노한다. 또 흑인 주민 헨리 라이스(Henry Rice)도 경찰이 흑인 군중들만 습격하고 때렸다면 두 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제도적, 지리적 차별화에 분노를 터뜨린다. 반면, 호주에서 온 유대인 노르만 로젠바움(Norman Rosenbaum)은 동생 안젤 로젠바움의 사망 사건을 두고 “그가 단지 유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103) 흑인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지적하며 크라운 하이츠를 정의가 없는 지역으로 규정한다. 이처럼 정의에 관한 한 두 공동체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장례식장도 예외가 아니다. 유대인관계위원회 이사 마이클 S. 밀러(Michael S. Miller)는 가빈 가토의 장례식장에서 “유대인 죽여라”와 “히틀러 만세”(96)와 같은 외침들이 있었다면서 이곳을 일종의 정치집회장으로 묘사하며 유대인에 대한 흑인의 “증오가 끝이 없을 정도로 깊게 뿌리박혀 있다”(96)고 말한다. 두 공동체 사이의 이러한 증오는 사회의 여러 제도들을 구조화하는 힘들 사이에서 구성된 인종 정체성과 이에 기초한 지리적·정신적 거리화의 결과이다.

로스앤젤로스 중남부 역시 『황혼』에서 인종이라는 사회적 범주가 차별적 지리의 형태로 영역화되어 있는 지점이다. 스미스는 로드니 킹(Rodney King) 사건을 통해 그 이면에 작동하는 이러한 인종적 거리두기의 메커니즘을 밝힌다. 이를 위해 그녀는 로드니 킹에게 폭력을 가한 경찰관들이 무죄로 풀려난 직후 발생한

폭동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콜라주 형식으로 그려낸다. 사건의 원인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그녀는 원래는 200여명과 인터뷰했으나 그 중 일부만을 이 극에 담은 것이다. 이 극은 흑인, 한국계미국인, 비벌리힐스 부동산 중개인, 할리우드 배우 대행인, 파나마 이민자 어머니, 흑인 갱단원, 멕시코계미국인 예술가, 로드니 킹 숙모, 폭행당한 백인 트럭운전자 레지널드 데니(Reginald Denny), 전 로스앤젤레스 경찰 총수 다릴 게이츠(Daryl Gates), 그리고 폭동의 희생자들과 목격자들이 내뱉는 자신들의 삶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아버지 조지 부시(George Bush) 대통령, 맥신 워터즈(Maxine Waters) 의원이 내놓은 폭동의 원인에 대한 진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로스앤젤레스 중남부는 크라운 하이츠의 흑인지역과 마찬가지로 교육, 문화, 경제면에서 불균등이 심화된 빈민지역으로서 인종차별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이곳이 인종과 관련된 차별적 지리의 담론이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인종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형성된 지점이라는 점에서, 이곳은 인종과 지리가 공간적 맥락 속에서 구성된 “상호관계의 산물”(Massey 280)이다. 이 극이 로드니 킹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인종적 타자들의 잠재된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거울 속의 불길』의 공연은 이러한 생각들을 “거리에서 무대로 옮겨놓는”(Brown-Guillory 373) 작업인 셈이다. 스미스는 로드니 킹 사건에 대해 심미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의 선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인터뷰를 시작할 때 그녀는 ‘사건들’이라고 지칭할 뿐, ‘폭동’(riot), ‘반란’(rebellion), ‘봉기’(uprising), ‘혁명’(revolution)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 그렇지만, 인물들이 이 사건을 어떠한 용어로 지칭하느냐를 보고 그들의 인종적 정체성이나 그들이 ‘위치한’ 지리를 가늠할 수 있다. 흑인과 유대인 사이, 뿐만 아니라 흑인, 한국계미국인, 남미계미국인 사이에 발생한 이러한 ‘사건들’을 두고 그들이 교환하는 대립적인 관점에서 알 수 있듯이, 크라운 하이츠와 로스앤젤로스 중남부지역은 결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각각 개인이든 집단이든 인종의 범주에 따른 지리적 차별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배제의 지점이다.

III. 공간의 거리화와 억압의 재생산

크라운 하이츠와 로스앤젤레스의 중남부는 얼핏 보면 인종적 타자들끼리는 물론이고 백인 공동체와도 평등한 교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다문화적’ 혼종성의 지역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사회·문화적으로 생산된 인종 담론으로 인종적 타자들이 특정 공간에 적합한 주체로 구성되며 차별이 정당화된다. 『거울 속의 불길』에서는 인종의 정체성은 언어나 말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인종 담론은 “공공의 담론들”(Reinelt 609) 중 하나이다. 인종적 타자를 ‘위치짓는’ 공간의 생산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닐 스미스가 지적하듯이, “공간의 생산은 역시 공간의 물질적 생산과 떼어놓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의미, 개념,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의식의 생산을 포함한다”(107). 말하자면, 인종적 타자를 구성해내는 이러한 담론은 차별적 공간을 구성해내는 동시에 편견이나 왜곡된 재현으로 타자들의 의식을 통제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권력으로 기능한다.

『거울 속의 불길』에서 유대인공동체와 흑인공동체가 미국의 문화 속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지배문화의 물리적·상상적 거리두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스미스가 인터뷰한 흑인 극작가 조지 C. 울프(George C. Wolfe)가 캐피탈극장(Capital Theatre)에서 <101마리 달마시안>(101 Dalmatians)을 관람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 극장이 인종의 범주에 따라 흑인출입이 금지된 시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취급받았다”(17)고 기억하며 “자신의 위치를 백인성과 관련지어 결정짓지 않을 것”(18)이라고 다짐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흑인성이 백인성과 관련해서는— 존재— 존재하지 않는다”(18)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지리적·심리적 위치가 어떠한가는 콘라드 모하메드 목사(Minister Conrad Mohammed)의 말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흑인들의 조상들이 가축이나 배설물(63)로 취급되어 왔듯이, 오늘날 흑인들도 백인들에게 인간성을 빼앗겨버린 비존재로서 “총체적인 굴종”(65)의 상태에 있다고 지적한다. 덧붙여 그는 캘커타,

뉴델리, 혹은 나이지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유독 흑인만이 자기 자신을 망각한 채 과거와 단절돼버린 “기억상실의 희생자”(65)로서 백인들에게 모든 지식을 빼앗겨버린 “동물들” 혹은 “비인간”(66)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백인지배문화에 의해 담론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도둑맞은”(67) 처지에 있다. 비록 유대인이 선민사상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인종 담론의 희생자들이다. 유대인 자유주의자 레티 카틴 포그레빈(Letty Cottin Pogrebin)은 흑인들과 유대인들이 각각 지배문화의 희생자로서 “서로에게 다가가기에 충분히 가까운”(61) 거리에 있지만 백인의 지배 전략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그가 “데이비드 듀크(David Duke)를 지지하는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61)라고 묻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들은 각각 구성된 인종 정체성에 따라 구조화된 제도 속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수치”(62)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평가 그레고리 제이(Gregory Jay)는 『거울 속의 불길』에서 흑인이 겪어온 노예경험을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차원에 두고 인종 담론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타자들을 억압하는 기제로 이용되어 왔는가를 분석한다(119). 이렇듯, 인종 담론이 흑인과 유대인의 피지배문화를 억압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재현 전략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인종의 재현 전략은 『거울 속의 불길』에서는 근본적으로 인종적 편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는 MIT 물리학자 아론 M. 번스타인(Aaron M. Bernstein)이 언급하는 거울에 대한 논의에서 암시되어 있다. 그는 어느 그림을 예로 들면서 “젊고 예쁜 여인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 마녀로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그녀가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3)라고 말한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여인의 본 모습을 왜곡하는 그 거울은 “진짜 거울이 아니다”(2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배문화가 인종적 타자들을 지배할 목적으로 그들을 정의하려한다면, 그들의 정체성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지배문화가 생산하는 인종 개념은 이 극에 등장하는 안젤라 데이비스가 밝히는 것처럼, “유럽 식민주의자들이 . . . 세계를 정복하여 이를 식민화하기 위해 구성했던 개념”(42)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

한 “인종 개념의 기원에는 인종주의가 깔려있다”(42)는 것이다. 비록 인종 개념이 일종의 구성된 기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곡된 재현으로써 인종적 타자들을 차별화하는 힘을 지닌다. 특히 ‘호명’은 인종적 타자들을 배제하거나 계층화하여 차별적 거리를 생산한다. 『황혼』에서 멕시코계미국인 루디 살라스(Rudy Salas)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께서 “멕시코인이기 때문에 열등하다!”(29)라는 말을 들어왔다고 지적하며 편견에 사로잡힌 “저-잘난-백인-선생들”(30)을 적으로 여겨온 인물이다. 이렇듯, 인종 타자들이 열등하다는 편견이나 신념체계를 생산하는 제도망이나 교육제도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들을 차별화된 지리에 배치하는 사회적 권력으로 기능한다.

『황혼』에서 인종간의 차별화는 지배문화와 피지배문화 사이뿐 아니라 인종적 타자들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에서 잘 드러난다. 로스앤젤레스 폭동이 일어나기 일 년 전에 한국계미국인 두순자(Soon Ja Du)가 15살짜리 흑인소녀 라타샤 할린스(Latasha Harlins)를 충기로 살해한 사건을 두고 흑인공동체와 한인공동체가 보인 반응은 두 그룹간의 인종적 거리를 잘 반영해준다. 두순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할린스가 주스를 훔쳤고 의자로 그녀를 가격한 결과로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 반면, 할린스 편에 선 사람들은 그녀가 훔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등 뒤에서 충격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두순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는데, 변호사 찰스 로이드(Charles Lloyd)는 이 사건을 “흔히 있는 일”이지만 “정치화”(45)된 사건으로 보는 반면, 흑인활동가 지나 레이(Jina Rae)는 그녀에 대한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다”(46)고 주장한다. 하나의 사건을 둘러싸고 그들이 보인 상반된 시각은 그들 사이에 놓인 물리적, 심리적 거리만큼이나 서로 다르다. 한국계미국인 주류판매가게 주인 양제이웅(Jay Woong Yahng)의 말처럼 그들은 서로 “고객과 주인이 아니라 꼭 적과 같은”(47)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일 년 후에 흑인 로드니 킹 사건 때문에 발생한 폭동에서 한국계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것도 인종간의 차별적 거리와 무관하지 않다. 사실, 로드니 킹 폭행사건의 목격자였던 시청 서기 조시 모랄레스(Josie Morales)는 백인 경관들의 폭행을 “잘못된 것”(50)으로 보았는데, 그들이 풀려난 것을 알고서 “아

주 당혹스러웠다”(51)고 말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사건에 대한 흑백 간의 견해도 이처럼 상반되어 있다.

흑백간의 차별적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는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중남부 지역과 대조를 이루는 비벌리힐스 출신의 부동산 중개인 일레인 영(Elaine Young)의 말을 통해 잘 드러난다. 그녀는 백인 중상류층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흑인들의 폭동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폭동이 일어난 이튿날에 친구와 함께 찾아간 비벌리힐스 호텔을 그녀는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요새”(79)로 묘사한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주로 실제적으로나 상상적으로 지배체제의 공간개념을 생산하며 우월적 경제자본을 갖고 있는 백인들이다. 이렇듯, 백인중상층 지역과 로스앤젤레스의 중남부 지역 간의 불평등은 1990년대 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940년대 초에 발생한 멕시코계미국인들의 폭동도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미스는 그들의 의상에서 이름을 따온 “जू트 슈트 폭동”(The Zoot Suit Riots) 사건을 인터뷰 내용에 넣음으로써 50여년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민주당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은 이러한 불평등이 오늘날에도 다양한 인종적 타자의 지역에서 “실직, 희망 없음, 절망이라는 심각한 문제”(134)의 형태로 계속되고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듯, 인종 담론을 통한 정체성의 정치는 타자들을 주변화하고 배제하는 수단으로서 그들과의 지리적, 심리적 거리를 생산하는 사회적 권력으로 기능한다.

비록 『거울 속의 불길』과 『황혼』에서 인종적 타자들이 모두 미국인이지만, 그들은 각자의 공동체에 간헐 편협성을 보인다. 크라운 하이츠의 흑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중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흑인들, 한국계미국인들, 남미계미국인들은 미국의 지배문화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주변의 공동체들과도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좁히지 못한다. 이러한 거리화의 주요 원인은 『거울 속의 불길』에서 등장하는 평화봉사단의 책임자 로버트 셔먼(Robert Sherman)이 진단하듯이, 무엇보다도 “편견, 인종주의, 그리고 차별”(74)에 있다. 특히, 흑인과 유대인간의 차별적 거리는 유대인 공동체의 로즐린 말라무드(Roslyn Malamud)가

이웃의 흑인공동체에 대한 선입견을 밝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폭동에 가담했던 흑인들이 내 이웃이 아니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내 흑인이웃을 모릅니다. 말했다시피, 좋아하는 음식이나 종교가 달라서 . . . 우리는 친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Do you know that the Blacks who came here to riot were not my neighbors? I don't love my neighbors. I don't know my Black neighbors. I told you that we don't mingle socially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food and religion. . . . (128)

인종에 따른 개별 공동체는 이와 같이 문화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공동체와는 거리를 좁히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인종적 타자들은 미국의 시민이면서도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열증을 경험한다. 지배문화와 자신들의 피지배문화 사이에 처한 그들은 호미 바바(Homi Bhabha)가 말하는 “이중화의 분열”을 겪는다(207-09). 왜냐하면 그들이 지배문화권이 생산하는 차이의 인종 담론을 내면화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평가 로즈마리 I. 웨드스톤(Rosemary I. Weatherston)이 지적하듯이, 인종 정체성과 차별적 공간을 지속적으로 구성해내는 “차이의 사회적 범주와 담론은 개개인의 인식뿐 아니라 구어, 개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권력 간의 밀접한 관계를 구조화한다”(231). 특히, 흑인들은 지배문화와 자신의 문화 사이에 위치한 혼종적 주체로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황혼』에 등장하는 흑인비평가 코넬 웨스트(Cornel West)의 말처럼 “[자신들을] 비인간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회에서 온전할 수 있다는 느낌을 상실하게 되는”(106) 불안을 경험한다. 흑인들이 “가면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창조해왔다”(106)고 자부하지만, 그러한 공간은 흑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여 그들을 차별적 지리에 배치하는 “백인 우월성의 유령들”(106)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계미국인 이진호(Jin Ho Lee)의 말을 빌면, 많은 흑인들은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지

금도 노예입니다”(141)라며 스스로를 비하한다. 즉, 흑인들이 자조 섞인 투로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들을 차별화하고 주변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결과이다. 이렇듯, 백인우월성이라는 이데올로기 하에서 그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정체성의 분열을 겪는다. 이러한 분열증은 혼종적 주체들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불안의 한 양상으로서 한국계미국인 박 월터(Walter Park)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미국인이면서도 그러한 인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저는 소외된 기분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120)라고 말한다. 그가 겪는 이중의식적 불안은 인종적 타자들이 지배문화와 자신들의 문화 사이에서 어느 곳에도 확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혼종성은 궁극적으로는 지배 전략에 균열을 내며 각종 차별적 경계를 허무는 저항의 힘으로도 기능한다.

IV. 혼종적 정체성과 저항

스미스의 <길 위에서> 프로젝트는 인종 정체성의 재생산을 통한 지배전략을 폭로하고 이에 맞선 인종적 타자들의 저항성을 여행의 은유로 그려낸다. 사실, 스미스가 『거울 속의 불길』과 『황혼』에서 추구하는 목표도 궁극적으로는 “인종, 민족, 종교, 젠더, 계급에 상관없이 관객들이 경계를 가로지르게 되는 역공간”(a liminal space, Seamon 228)의 정치적 가능성이다. 이를 위해 스미스는 우선 인종과 공간의 담론에 내재한 상징폭력을 가시화하고 각 공동체의 해방욕망이 어떻게 경계를 가로지르는 저항의 양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준다. 인종 담론이 타자를 차별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구성되고 체계적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배체제의 지속적인 코드화에 저항하기 위해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다.

인종적 타자들의 저항의 가능성은 『거울 속의 불길』의 초반에서 엔토자게 상계의 말을 통해 암시되어 있다. “나는 내 주변의 일부이지만, 나는 그곳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 . . 우리는 사막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지만, 우리는 사

막이 아닙니다”(11). 사실 흑인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의해 ‘사막’이라는 상징으로 정의되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한 정체성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그러한 정체성이 사회의 특정한 권력 작용에 의해 구성된 개념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차별적 지리에 배치하는 사회 권력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구성물로서의 정체성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엔토자케 상계가 주장하듯이, “무엇이 당신의 것이고, 무엇이 다른 사람의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12).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주장이 인종 절대주의나 집단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데비 탐슨이 지적하듯이, “우리는 인종이라는 엄격한 범주 속에 살게 되면 또 다른 정체성의 범주나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약을 받게 되기”(137)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한 권력에 의해 생산된 이러한 집합적인 의미의 정체성이 해체될 때에야 비로소 인종적 타자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간의 위기는 각 공동체가 정체성이라는 ‘안전한 집’에 갇혀 인종적 타자를 열등한 주체로 구성하는 ‘위치짓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미스는 『황혼』에서 이러한 ‘위치짓기’를 지리적 공간이나 정치적 입장의 형식으로 극화하고 있다. 그녀가 지적하듯이, “우리들이 어느 장소에 배치되면 우리들은 하나의 사회 계층에 갇히게 된다”(Smith, “Insights”). 지배체제가 우월적 지위에서 타자들을 차별적 지리에 배치하게 되면, 그것은 곧 구별짓기의 행위나 다름없다. 이 극에서 멕시코계미국인 루디 살라스는 백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갖고 있지만 자신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나는 백인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을 백인으로 보지 않기”(32)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그는 백인친구에 대해서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지만, 그 밖의 백인들에 대해서는 인종적 편견을 지닌 인종차별주의자이다. 『거울 속의 불길』에서 안젤라 데이비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우리들이 우리들의 공동체에 아주 굳건하게 닳을 내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결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낡은 연합의 개념”(43)을 가진 인물이다. 이러한 태도로는 타인들과의 진정한 소통은 기대할 수 없다. 뉴욕의 흑인활동가인 알 샤프톤 목사(The Reverend Al Sharpton)는 자동차 사고를 낸 유대인 운전사

가 미국을 떠났으며, 유대인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미디어도 왜곡되었으며, 또 랍비가 가빈 케이토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애도도 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대한 공감의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미스의 극은 궁극적으로 게일 왈드(Gayle Wald)가 지적하듯이, “결코 같은 방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 . . 간의 상상적이며 대단히 사사로운 대화”(Wald)로 짜여져 있다. 사실, 스미스가 <길 위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자기만의 ‘방’이나 ‘집’에 갇히지 않고 타자의 공간을 인정하고, 인종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공감하고, 궁극적으로는 “낮선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Smith, “Getting Closer” 18)이다. 이러한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만이 인종과 공간적 억압에서 자유로운 ‘제 3의 공간’(the Third Space, Bhabha 37)이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공동체는 『거울 속의 불길』에서는 안젤라 데이비스가 말하는 “땃줄”(43)에서, 『황혼』에서는 트와일라이트 베이(Twilight Bey)가 극의 마지막에서 내뱉는 “황혼”(171-72)에서 은유적으로 암시되어 있다. 안젤라 데이비스는 공동체 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땃에 매달린 땃줄이 충분히 길어야 우리들이 다른 공동체로 건너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게 된다”(43)고 말한다. 즉, 자신의 공동체에만 갇혀 있는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소통에 기초한 새로운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황혼』의 마지막에서 한때 갯 단원이었던 트와일라이트는 개념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 ‘황혼’이 상징하는 ‘중간지대’에서 이러한 희망을 꿈꾼다.

나는 어둠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
나는 영원히 그러한 개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

황혼은
낮과 밤사이의
시간이다
중간지대
나는 그것을 중간지대라 부른다.

I can't forever dwell in darkness
I can't forever dwell in the idea.

.

So twilight
is
that time
between day and night
limbo
I call it limbo. (171)

스미스의 극에서 닳줄과 황혼은 관객들이 낯선 장소를 “산책”(Smith, “Insights”) 하면서 도달하게 되는 이상적인 혼종성의 세계를 상징한다. 이러한 산책은 바로 인종적 타자들이나 공동체들이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화해함으로써 인종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타자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게 되는 일종의 여행이다. 사실,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백인 트럭운전사 레지널드 데니(Reginald Denny)가 여러 명의 흑인들에게 폭행당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말처럼 그가 단지 백인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암시하듯이, 인종간의 화해는 다른 사람을 “사랑과 정”(114)으로써 “피부색이 아니라 사람”(115)으로 만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트와일라이트 베이카 갭단 간에 휴전을 이끌어냈듯이,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황혼은 관객들의 해방 욕망이 공간성의 양식으로 형상화된 이해와 소통의 공간이다. 즉, 황혼은 차별적 지리를 상호구성하는 “인종적 경계[가] 교란되고 혹은 초월될 수 있는”(기현주 47) 해방공간을 상징한다. 비록 스미스가 이러한 공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가 목표로 삼는 세계는 바로 “공유의 공간들, 즉 경계지대들, 문화적 혼종성, ‘제 3의 발화 공간’”(Stanley 205)이다. 이러한 ‘공유의 공간들’은 『거울 속의 불길』에 등장하는 유대인 랍비 시아 헤크트(Rabbi Shea Hecht)의 말처럼 단순히 “우리들의 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세계이다(115). 안젤라 데이비스 역시 이러한 세계를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정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변화할 수 있고, 새로운 역사적 필요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44) 공동체라고 정의한다. 즉, 그것은 인종

의 사회적 범주가 아니라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된 공존의 세계를 말한다. 스미스는 『거울 속의 불길』과 『황혼』에서 관객들로 하여금 인종적 타자들을 차별적으로 분류하는 자신들의 집단주의적 편견을 직시하고 “[자신]들의 사회적 양심을 진단하도록 만듭으로써”(Jay 119)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시도한다.

V. 결론

『거울 속의 불길』과 『황혼』은 1990년도 초에 크라운 하이츠와 로스앤젤레스 중남부에서 발생한 인종관련 사건들에 대한 인종적 타자들의 반응들을 독백의 형식으로 그려내면서 인종 정체성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드러내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스미스는 정체성이라는 ‘안전한 집’에 갇혀 타자들을 차별화하는 집단주의적 공동체주의를 이러한 사건들의 근본 원인으로 진단한다. 이 과정에서 인종 담론은 인종적 타자들의 정체성을 구성해내고, 이에 기초하여 그들이 위치한 물리적, 심리적 차별의 지리를 생산해내는 권력으로 기능한다. 인종적 타자들이 이러한 공간적 예측에서 벗어나는 길은 인종 담론을 해체하고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차별화된 지리적 공간에 배치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듯, 그들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자신들의 정체성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들은 비로소 인종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개인적 혹은 사회적 화해로 나아갈 수 있을”(Jay 121) 것이다. 여컨대, 그러한 화해의 세계는 바로 공동체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차이들이 통합된 ‘공유의 공간들’이다.

스미스는 『거울 속의 불길』과 『황혼』을 관객들로 하여금 “[그들이] 속하지 않는 낯선 장소로 산책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이제껏 없는 줄로만 알았던 경계를 가로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Smith, “Insights”)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인종이라는 사회적 정체성과 그에 따른 차별적 공간이 타자를 배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은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다. 이들 극에서 목표로 하는 세계는 공동체 간에 존재하는 각종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중간지대라는 은유로 암시되어 있다. 그곳은 인종 담론에 의한 차별적 경계를 가로지르며 공동체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혼종적 공간이다. 말하자면, 이는 각 공동체의 차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온전한 통합을 이루는 세계이다. 이 점에서, 스미스의 두 극은 관객들로 하여금 “전혀 생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어떤 것”(Smith, “Getting Closer” 18)을 직면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종이나 사회문화적 담론에 의해 구성된 정체성이 아니라 주체의 일부로 편입되지 않는 타자의 타자성이다. 스미스는 관객들로 하여금 이러한 인종적 타자들의 타자성을 직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문화적으로 차별적으로 구성된 인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만나게 되는 변화를 유도하는 정치극이다.

주제어 애나 드비어 스미스, 『거울 속의 불길』, 『황혼』, 인종, 정체성, 공간

인용 문헌

- 기현주. 「애나 드비어 스미스의 『황혼』: 수행적 정체성과 인종적 경계 허물기」. 『현대영미드라마』 23.3 (2010): 33-52.
-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Print.
- Brown-Guillory, Elizabeth. Rev. of *Twilight: Los Angeles, 1992* by Anna Deavere Smith. *African American Review* 31.2 (1997): 372-73. Print.
- Butler, Judith.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1990. New York: Routledge, 1999. Print.
- Jay, Gregory. “Other People’s Holocausts: Trauma, Empathy, and Justice in Anna Deavere Smith’s *Fires in the Mirror*.” *Contemporary Literature*

- 48.1 (2007): 119-49. Print.
- Martin, Carol. "Anna Deavere Smith: The Word Becomes You." *TDR: The Drama Review* 37.4 (1993): 45-62. Print.
- Massey, Doreen. "Spaces of Politics." *Human Geography Today*. Ed. Doreen Massey, John Allen, and Philip Sarre. Cambridge: Polity Press, 1999. 279-94. Print.
- Myers, Elizabeth M. "Performing Personal Narrative: Anna Deavere Smith's *Fires in the Mirror*." *English Journal* 87.2 (1998): 52-57. Print.
- Reinelt, Janelle. "Performing Race: Anna Deavere Smith's *Fires in the Mirror*." *Modern Drama* 39.4 (1996): 609-17. Print.
- Scanlan, Robert. "A Wake in the Fourth Row: Incurable Realism." *Harvard Review* 3 (Winter 1993): 98-100. Print.
- Seamon, Mark. Rev. of *Enacting Others: Politics of Identity in Eleanor Antin, Nikki S. Lee, Adrian Piper, and Anna Deavere Smith*. By Cherise Smith. *Alabama Review* 65.3 (2012): 226-29. Print.
- Smith, Anna Deavere. *Fires in the Mirror: Crown Heights, Brooklyn and Other Identities*. 1993. New York: Dramatists Play Service, 1997. Print.
- . "Insights from a Perpetual Outsider: The Creator of *Twilight: Los Angeles, 1992* Examines the Riots' Echoes." *Los Angeles Times Online*. 28 April 2002. Web. 24 August 2015.
- . "Getting Closer to America." Interview by Jim O'Quinn. *American Theatre* 13.8 (1996): 18-21. Print.
- . *Twilight: Los Angeles, 1992*. 1992. New York: Dramatists Play Service, 2003. Print.
- Smith, Neil. *Uneven Development: Nature, Capital, and the Production of Space*. 3rd ed. 1984. Athens: U of Georgia P, 1990. Print.
- Stanley, Sandra Kumamoto. "Teaching the Politics of Identity in a Post-identity

Age: Anna Deavere Smith's *Twilight*." *MELUS* 30.2 (2005): 191-210.
Print.

Thompson, Debby. "Is Race a Trope?": Anna Deavere Smith and the Question of Racial Performativity." *African American Review* 37.1 (2003): 127-38.
Print.

Wald, Gayle. "Anna Deavere Smith's Voices at *Twilight*." Rev. of "The Mark Taper Forum Production of *Twilight: Los Angeles, 1992*, dir. by Emily Mann." *Postmodern Culture Online*. January 1994. Web. 24 February 2013.

Wald, Gayle. "Anna Deavere Smith's Voices at *Twilight*." Rev. of "The Mark Taper Forum Production of *Twilight: Los Angeles, 1992*, dir. by Emily Mann." *Postmodern Culture Online*. January 1994. Web. 24 August 2015.

Weatherston, Rosemary I. "Turning the Informant: the Making of Difference in Twentieth-century American Literature and Culture." Dis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olumbia, 1999. Web. 24 August 2015.

Race and Differentiated Geography in Anna Deavere Smith's
Fires in the Mirror and *Twilight*

Abstract

Jung, Byung-Eon

This essay examines the ways in which race and space are socially constructed to provide a typical strategy for legitimating racial domination and differentiated places in Anna Deavere Smith's *Fires in the Mirror* and *Twilight*, by utilizing Neil Smith's theory of space. Mainly caused from what she calls "the dangers of being relegated to a 'place'" in relation to race, the riots in Crown Heights and Los Angeles are central to the approach in that the relation between race and space can be considered a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racially differentiated geographies. This essay places identity politics at the heart of racial conflicts among groups such as African Americans, Jewish Americans, Korean Americans, and Mexican Americans. Racial identities construct the space for generating the distance from the others as the differentiated geographies assigned to them construct these identities. The racial others' experience of being racially differentiated in these plays ultimately results from the construction of race identities that assign racial meaning to these regions. After exploring these processes, this essay argues that *Fires in the Mirror* and *Twilight* propose "the possibility of crossing over a [racial] line" by challenging race and the differentiated spaces it supports.

Key Words Anna Deavere Smith, *Fires in the Mirror*, *Twilight*, race, identity, space

정병언(단독연구)

부산대학교

논문투고일: 2015년 11월 6일

논문심사일: 2015년 11월 24일~12월 9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16일